

일차진료 의사들의 비만 진료 행태 조사

박지영, 박혜순, 조홍준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

배경: 비만치료제가 시판된 후 일차진료 의사들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. 그간 의과대학 교육 과정 및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비만 치료에 대해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. 이에 비만치료제가 시판된 이후 일차진료 의사들의 비만 진료 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: 본 연구 대상은 일차진료기관 요양기간 명단에서 내과 개원의 348명과 가정의학과 개원의 311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. 비만에 대한 지식, 비만 관리에 대한 태도, 비만 환자의 평가 및 치료에 대해 구성된 설문지를 2002년 8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편 발송하여 회수하였다. 총 659명 중 355(내과 개원의 206명 및 가정의학과 개원의 149명)명에서 설문을 회수받아 응답률은 53.9%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.

결과: 355명 중 남자가 89.6%, 여자가 10.4%였으며, 가정의학과 의사가 42.0%, 내과 의사가 58.0%였다. 전체 응답자 중 98.9%가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, 그 이유에 대해서는 57.8%에서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.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에 의한 비만 및 복부 비만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67%와 37%였다. 무증상 초진 환자에서 신장 및 체중 측정은 51.5%에서 거의 하지 않았고, 88.2%에서 허리둘레 측정을 하지 않았다. 비만 환자 진료시에도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30.1%와 60.8%였다. 비만 환자의 의학적 평가시 대사 위험인자에 해당되는 혈압, 공복혈당, 총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HDL-콜레스테롤에 대한 측정은 각각 83.9%, 44.2%, 53.2%, 48.2%, 32.2%에서 한다고 하였다. 경구용 비만치료제에 대해 63.4%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고 65.4%에서 비용이 비싸다고 하였다. 비만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에 대해 orlistat는 85.3%, sibutramine은 74.0%, phendimetrazine은 13.5%, aminophylline injection은 6.4%, endemologie는 3.9%에서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답하였다. 비만치료제가 필요 없는 환자에 의해 처방요구를 경험해 본 경우가 90.4%에서 있었으며 69.4%에서는 처방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비만에 대한 정보 취득은 연수강좌가 65.1%, 학술지가 52.4%, 인터넷이 13.8% 순으로 나타났다. 비만 진료 행태에 있어 의사의 전문과목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

결론: 대부분 비만 유무에 대한 평가 및 비만 환자에서의 합병증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미흡한 반면,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약물 처방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비만치료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, 비만 환자에서 건강 위험도가 높음을 인식하여 의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해 주도록 해야 한다.

중심단어 : 비만 관리